



한변 현안논평

담당자 070-4519-8619(직통번호)
사무처 02-599-4434 /
<https://hanbyun.or.kr>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헌법에서 정하는 변호인조력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전관을 내세우거나,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수입제한 조항 등에 위배하거나 과다수임료 및 광고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는 처벌 받아야 할 것이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 다단계, 가상화폐 전문' 등 전관을 표방하고,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에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법 및 광고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한변은 이 변호사의 소속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한변은 이 변호사가 과거 검찰에서 처리했던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 등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제31조 제1항 제3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4. 4. 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